

“남구민 ‘통일, 한걸음부터’ 관내 올레길 걷는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한차례씩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선 7기에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진한 통일 분야 정책 기조를 민선 8기에도 이어받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통일 올레길 걷기를 비롯해 남북 화합의 상징인 한반도기 상시 게양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

착 실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구에 따르면 10일 백운광장에서 ‘남구 통일 올레길 걷기 발대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관내에서 통일 올레길 걷기를 진행한다.

통일 올레길 걷기는 초창기에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한 뒤 마을 단위

중심의 전방위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네 주민들과 민간단체 중심의 통일 걷기 운동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관내 17개동 산책로 등 마을길을 중심으로 통일 올레길 걷기 코스를 발굴, 매월 한차례씩 각 마을을 순회하며 통일에 관한 평화 메시지를 알릴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푸른길 공원 왕복 5.6km 구간에서 첫 번째 통일 발걸음을 내딛고, 7월에는 사직공원에

서 양림동 일원을 누비는 두 번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혹서기인 8월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9월과 10월, 11월에 각각 광주공원~광주천변길, 노대 호수공원~분적산, 빛고을노인건강타운~대촌천 일원으로 이동해 통일 올레길 걷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구는 6·15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한반도기를 구형 앞게양대에 연중으로 펼치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서구 ‘절골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총 476필지, 경계 확정·지적공부 정리 마쳐

광주 서구가 서창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서구는 지난 2019년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창절골마을의 총 476필지, 40만8천265.9㎡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따라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북구, 찾아가는 평생학습 ‘월 데이 클래스’ 운영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인 ‘월 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식당, 카페 등 여러 학습소(학습공간)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며 50여 곳의 장소에서 걷기, 영어, 그림, 수공예, 꽃꽂이, 생활소품 제작 등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월 데이 클래스 참여 학습소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 강사, 소상공인은 광주시 북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북구청 인권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 인식 제고와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산구청 제공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평생학습 인력과 콘텐츠, 커뮤니티 등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일터, 일상 등 다양한 공간에 학습환경을 조성, 평생학습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건강한 구강생활 행사·프로그램 진행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 인식 제고와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광산구 행복드림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강검진과 맞춤형 진료와 더불어 충치 원인 및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구강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어린이들에게 대해서는 OX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너에게 바라는 6가지 9(白)강습관’을 주제로 시민들의 건강한 구강생활 실천을 위한 걷기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다. 걷기앱 ‘워크온’의 ‘행

복오(로) 걷기광산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루 6969보씩 9일 이상 걷고, 양치하기, 치실·치간 칫솔 이용, 혀닦기 등 ‘6가지 9(白)강 실천 방법’ 중 3가지를 실천한 모습을 인증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챌린지 달성자 중 200명을 추첨해 칫솔 한 상자를 지급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 구강상식 등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형탁 기자

동구 “함께 놀아요” 토요일예술놀이터 호응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영·유아 가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예술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요일예술놀이터’는 인형극과 클래식 공연으로 구성된 그림책 콘서트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지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꼬마 마음씨의 축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이날 행사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의 3중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꼬마 마음씨의 축하 이야기 ▲나만의 악기 만들기 ▲음악과 함께하는 신체 놀이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음악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와 선율이 가득 담긴 이번 음악회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일예술놀이터’는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 2개 권역에서 격월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062-608-8821~3)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행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관광도시 광양
관광정보 방문하세요
gr.gwangyang.go.kr/

